



말해봅시다는 경화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뜻깊고 보람된 마음 느껴 일일탁아·요공과 바자회 통해

'서천 통일제'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있었다. 이번 통일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은 축제에 예상보다는 의외로 짜임새 있게 잘 치러졌다는 것이다.

통일제 혹은 대동제라고 함은 경화인의 하나된 모습,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축제들은 온통 술을 위한 축제인 마당 수없이 많은 주점들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이 도출되었다. 항상 축제에 끝난뒤에도 학교는 온통 어수선한 뿐이었지만, 이번 축제에서는 뜻깊은 행사도 함께 치루어져 의미가 새롭다.

예를 들면, 총학생회에서는 29일 '일일탁아 서천나들이'를 개최, 근처 탁아소 남·여 아동 약20여명을 초청해 학생들이 하루동안 엄마, 아빠가 되었으며 이를 지원한 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여러가지 오락과 다과를 준비해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였다.

그와, 요공과정에서는 축제기간 내내 바자회를 열어 자신들이 팔을 세워가며 직접 만든 도자기를 팔아 병식에 있는 학우를 위한 모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학우들이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요즘의 학생들은 기성세대가 걱정하는 것 만큼 이기적이고 향락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웃고 즐기는 가운데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사회는 그렇게 어둡지 않을 것이다.

정연경
(서비아어·2)

현 시기에서의 분열된 모습 보이지 말아야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대협 출범식이 부산에서 있었다.

다채로운 행사와 통일의 열기를 높이는 여러가지 모습들중 나의 눈에 참으로 기이한 현상들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87년 6월항쟁을 재현하기 위해 기성세대들까지 범국민대회의의 조직에 속속 포함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투쟁의 일 주체세력인 학생운동권내에서의 노선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학생의 입장인 나로서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권미영
(국문·3)

신갈호수 수질오염 심각한 상태 우리들의 썬터, 결코 간과할 수 없어

내가 학교에 들어온지 어언 3년, 파가 공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산업대, 자연대 및 작년에 완공된 학생처관까지도 거의 안가본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중 친구 하나가 신갈호수에서 배타는 것도 수원캠퍼스를 다니면서 꼭 한번은 즐길만한 일이라고 하여 단순히 함박고개를 넘어 신갈호수로 친구들 몇명과 더불어 가보았다.

처음에 가 볼때의 신갈호수는 배두산 찬지호수 만큼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TV에 나오는 폐수만큼은 안되겠지라는 일말의 기대감마저도 있었다.

노를 저어 배가 호수 중심으로 계속 갈수록 흙사 콜라같은 호수의 물이 몸에 한방울이라도 뿔까 조심하는 모습을, 또한 호수가 주변에 널려져 있는 등이 굽은 물고기의 잔해들. 말그대로 TV에서 보아오던, 생물이 살수 없는 폐수에 다름아나았다.

우리들은 스몰배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무심코 아름다운 호수의 풍경들만을 보고 다니다.

과연 우리를 중 이와같은 신갈호수의 참상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것인가 다시금 되뇌어 본다.

하물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와 자취방등에서 쓰는 식기들은 심중발수 신갈호수를 그 원인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TV에서나 보아왔던 폐수로 오염된 강이나 호수가 바로 우리들 곁에 있었으며 또한 그 폐수로 오염된 물을 우리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을.

시국사범 석방조치, 노정권 본질 보여 보안법 철폐등 과감한 민주개혁 시급

정부는 지난 25일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함께 시국사범 2백50명에게 가석방이라는 은혜(?)를 베풀었다.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에 의해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는 민자당 해체와 노정권 퇴진운동을 조금이라도 수그러 뜨리려는 행동이 아닐까.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조조직법, 방송법등 온갖 악법의 날치기 통과를 이번에도 서슴없이 벌이고 말았던 현정권.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조조직법, 방송법등 온갖 악법의 날치기 통과를 이번에도 서슴없이 벌이고 말았던 현정권.

6.29의 역사적 완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이번 시국사범을 석방하였다고 하나 그들은 그 어두운 방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리운 부모, 형제, 댄지의 따뜻한 품으로 향한다. 현정권의 부도덕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기도 하다.

지난 12.27개각을 통해 노재봉을 위하한 이른바 친위세력을 내각에 포진 시킨공정정치를 펼치더니 이번 개각에선 지난 시절 무자비하리만큼이나 많은 우리의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몰아 내 이룰 내각의 총수로 임명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는 현정권의 부도덕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부는 다음선거에 또다른 대국민 유화책으로 내놓지 않을까 의심스럽기도 하다.

독재권력의 정권안정을 위해 치뤄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결코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군의 타살사건이후 계속된 분신자살등의 끔찍한 타오르는 은국인의 민주화 열기를 식힐 수는 없으며 이제 우리의 의식수준은 그런 일방적인 수습책에 결코 속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최없이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원석방되어야 하며 정부는 현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과감한 민주화로 향한 개혁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김중희
(신방·1)

정은영
(사회·1)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김대영
(원자·3)

자기향상 위한 커다란 동기



6월 주제 '여 행'

알프스산을 오르기 위해서

용프라우 산정근처의 소도시 인터라켄에 도착한 것이 밤늦은 11시 30분경, 막차로 도착한 기차에서 역사무원들

도 귀가를 위한 하루일의 마감에 바쁜 모습이었다. 속소를 정하려고 대화할의 안내판을 보고 있는데 "한국서 오셨군요. 늦으셨네요"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대화할의 구석의 장의자에 짐을 올려놓고 쉬고 있는 젊은이가 보인다.

얼굴색과 피부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데 표정은 무척 밝았다. 대화할의 여행비용을 절약하려고 대화할의 장의자에서 하루밤 무료숙박을 하려 한다는 것이

다. 시간에 쫓겨 급한 인사만 나누고 역사밖의 무인안내관에서 머뭇머뭇 돌아다니며 호텔예약과 마치고 다시 대화할로 돌아오니 역사무원이 무료숙박자를

단속한다고 다국적의 여행자(대부분이 대학생들)를 내쫓고 대화할의 자물쇠를 채우고 있었다. 쫓겨나는 대학생

생각이 들어 호텔객정을 해 주며 정갈하게 있으면 같이 가자고 했더니 괜찮다면 세워져 있는 열차나 정양되면 화물차에서 눈을 붙이면 된다고 극구 사양하면서

아름답게 사라진다. 다음날 아침 용프라우산정으로 오르

는 케이블 기차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모습에서 그가 비교적 편안히 무료숙박을 때운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잠시 나눈 대화에서 그가 S대 토목학과 2학년과 마치고 입대를



이정명

(산업대 교수·원예학)

"유럽의 도시, 환경, 유적, 그리고
극속에서의 삶은 진취적 기상과 적
극적인 삶의 자세를 일깨워 준다"

기다려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몽땅 투자해 30일간의 유럽여행을 떠나는 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1990년 8월에 이태리에서 열린 국제원예학회에서 학술발표를 마치고 화란, 불란서, 이태리, 스위스등을 돌아보던 때였고

마침 방학중이어서 많은 한국대학생들을 접할수 있었다. 돈돈한 옷차림에 backpack을 하고 거슬은 얼굴들이었지만 표정들은 한결같이 밝았다. 나 자신도 유학생

황, postdoc, 교환교수, 초청강연등으로 가까운 일본, 대만을 포함해 많은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여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자연경관과 역사적유산을 접하려고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의 수많은 국립공원과 national monuments, 중국의 이강, 만리장성, 그리고 고대도시 서양의

유적들을 대할때는 자연의 신비와 조상들의 슬기의 중후함을 다져보는 감정이 주가 되었다고 비유한다면 유럽의 도시, 환경, 유적, 그리고 극속에서의 삶은 진취적

기상과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일깨워 주는 면이 더욱 컸다고 단정할수 있었다. 발랄함과 신속함속에서도 의외히 유지되는 질서는 바로 진정한 문화유산이요 정경이

아니었다 생각되었다. 한국의 박력이 넘쳐 흐르는 젊은이들이 유럽의 한도움을 자신의 모습과 의지로 그리고 자신만의 결정으로 하 나하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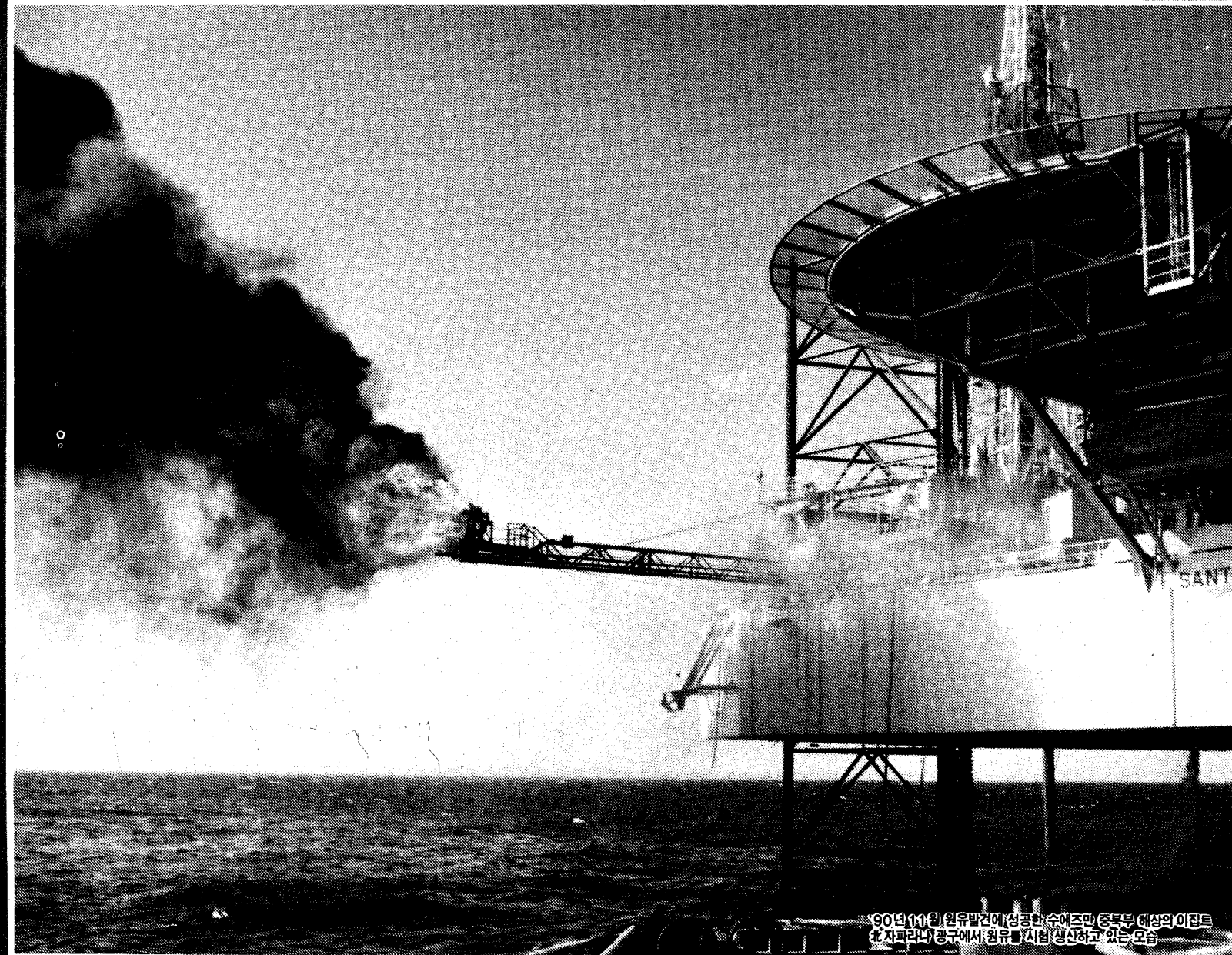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나를 접하게 될때 비록 30일간의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더 없는 경험과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향상을 위한 커다란 동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긴 여정방학에 앞서 단장을 정리해 본다.



유공은 13개국, 16개 광구의 해외유전개발에 참여하여 우리가 캐낸 석유를 직접 국내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유공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石油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우리 손으로 석유개발」이라는 슬로건 아래 80년대초부터 13개국 16개 광구의 석유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그 결과 예전의 마린브 유전개발에 성공 이미 '87년 말부터 하루 2만배럴씩 우리가 캐낸 석유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SK-7 광구와 이집트 북자파라나광구에서도 석유를 발견, 현재 경제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공은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미얀마(11바마) 친드윈 지역의 블록 C 광구 개발에 참여, 미국·영국 등 세계적인 석유회사들과 경쟁, 단독으로 운영권을 획득함으로써 석유 탐사에서 시추, 생산, 정제, 판매까지 일괄체제를 갖춘 메이저(International Major Oil Company)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공은 에너지 걱정없는 밝은 내일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유공이 해외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곳

- 미얀마(마리브) ● 말레이시아(SK-7) ● 오스트레일리아(AC/P-11) ● 이집트(북자파라나/자파라나) ● 에콰도르(B-12 광구) ● 미얀마(블록 C) ● 아랍에미리트(라스 알 카이마) ● 인도네시아(와티광구)

SUNKYONG
鮮京그룹

(주)신정, 신정인드스트리얼, SKC, 신정메탈, 해리온, 워커힐, 신정건설, 유공, 유공건설, 유공에너지, 유공가스, 유공에너지, 유공화학, 유공조선